

세례받으신 주님

마태복음 3:13-17

여러분은 **언제 세례를 받으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어떤 분은 날짜까지 또렷하게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구요,
또 어떤 분은 어릴 때 받아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세례가 지금의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세례는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추억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삶을 규정하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교회력에 따라 오늘은 **세례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은 사실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세례는 기본적으로 **죄인들이 받는 것**입니다.
물로 씻는 것은 죄 씻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반응은 너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주님께서 제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요한은 알았습니다.

이 자리는 예수님이 서실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루다(fulfill)”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약속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회복하시겠다는 약속
- 깨어진 세상과 병든 사회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
- 또, 죄로 무너진 인간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된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장면을
“두 번째 창세기”, 곧 재창조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 물이 있고
-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 물이 있고
-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무너진 창조를 다시 세우시는 재창조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내용을 담은 본문 말씀을
통해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렸다고 회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해도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항상 던질수 있어야 합니다.

- 하나님의 보실 때, 내가 올려드리는 예배는 어떠한가?
- 내 봉사는 어떠한가?
- 내 삶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세례는 “나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둘째, 세례는 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백주년 기념교회에서 이재철 목사님께서 시무하실때, 그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게 남는게 있는데요, 그것은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삶이 끝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가 의미하는 죽음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내가 죽는다”는 이 말은
내가 무가치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세례의 방식에는 대개 세가지가 있습니다.
몸 전체를 담그는 침수례(침례),
머리에 물을 붓는 관수례,
물을 뿌리는 살수례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몸을 담그는 침례는 세례의 의미를 가장 시각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속에 내 몸이 머리까지 완전히 잠기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뜻하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었다고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6:3-4)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기서 십자가는, 십자가 목걸이를 얘기하는게 아니죠?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그때마다 베드로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세 번째 물으시자, 베드로는 근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다시 말하면, "저의 약함, 저의 부족함, 저의 연약함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제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어떻게 부르셨는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땀을 흘리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요 21:18)

이 말씀은 단순히 '나이듦'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에는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반전은 내가 주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은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내 힘으로 살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전반전의 신앙입니다. 베드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네가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의 후반전이라고 하면, 주님을 믿을수록, 내 뜻, 내 의지, 내 욕구가 줄어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차원이 아닙니다.

신앙의 진정한 성숙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고백이,

또 그러한 삶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저로 말하면, 제가 더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설교를 더 잘하고, 기도도 더 유창하게 하는 것이 제가 더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점점 더 내 힘, 내 자존심, 내 계획,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바로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최근 제가 읽은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한 초신자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느낀 점을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마치 공짜로 아이스 스케이트를 선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그저 신이 나서 빙판 위를 달리며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죠. 그런데 어느 날, 유니폼을 입은 한 사람이 나타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스하키

팀에 온 걸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맹훈련입니다. 체력 관리도 철저히 해서, 우리 전국 대회 우승을 향해 달려갑시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던져야 할 질문은 “내가 구원받았는가?”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위해 구원받았는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봉사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죽기 위해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신앙의 연수나 직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오직 이것입니다.

**지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죽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가?**

**신앙의 전반전을 뛰고 있는가?
신앙의 후반전을 뛰고 있는가?**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하늘이 열렸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로 연결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25년 마지막 날에 저희 가정은 송구영신 예배를 가정예배로
드렸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장인어른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유독 작년에는 주변 분들이 많이 떠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고 하셨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새벽기도를
함께 드렸던 분이 갑자기 연락이 끊기더니 몇 일 내로 소천하셨다는 소식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과 죽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이 직면한 가장 크고 무거운 숙제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학식이나 재물, 높은 지위로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죄와 죽음이라는 거대한 늪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 문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확증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나 무덤에 머물지 않으시고, 삼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며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실재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55)

그래서 빌리 그래함 목사님은 생전에 이런 유명한 고백을 남기기도 했지요.

**“언제가 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더라도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저는 더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세례는 물의 사건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는,
첫째,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세례는 내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의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새로운 삶의 자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죽음은 곧 새로운 시작입니다.

2026년이 시작된지 벌써 두 주가 흘러갑니다.

정말이지 시간은 지체없이 흘러갑니다.

이제는

신앙의 전반전이 아니라 후반전을 뛰며,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삶,”

“주님 이끄심대로 사는 삶,”

“내가 온전히 부인되고 십자가에 지는 삶” 살아가셔서

여러분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 끝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여러분을 향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라는 주님의 음성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묵상 및 적용 질문 (Reflection & Application)

- 나의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눈물'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는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번 주,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나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 신앙의 전반전(내 힘으로 사는 삶)을 지나 후반전(주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내가 부인해야 할 '내 욕망'은 무엇이며, 주님이 대신 지워주신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 최근 나를 두렵게하거나 낙심하게 만든 '죽음과 같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신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며, 절망 대신 소망을 선택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